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국고 건의 정부예산반영 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미래차 산업·도시철도 2호선’ 속도

市, 차세대 반도체·SOC ‘숨통’
풀썸도시·돌봄사업 등 예산 확보
AI 2단계·달빛철도는 차질 우려
“국회 심의과정 추가 확보 노력”

광주시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내년 정부예산으로 지역현안 사업비 3조3244억원을 확보했다.

확정된 정부예산안을 보면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확산(30억원)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42억원) △차세대 반도체 첨단공정팩(64억7000만원)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60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19억2000만원)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로봇서비스 실증 및 평가기술(2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기반 의료제품 상용화 및 맞춤형 임상시험 지원(9억원), 수소도시 조성(65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사회기반시설(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1398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건설(28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9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81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23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132억원) 등이 반영됐다.

풀썸도시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빛고를 수상공원장 조성(8억4000만원)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지원(4억원) △광주 전자 디지털 과학관 구축(1억원)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35억6000만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 ACC 연계 양립권역 근대역사 거점벨트 조성(2억원)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돌봄도시 및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41억5000만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29억원)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9억7000만원) △도시침수예방사업(9억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19억7000만원) 등도 각각 확보됐다.

광주시는 지난 1월25일 ‘2025년도 1차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국정과제와 정부정책 방향을 따르면서도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비사업들을 적극 발굴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여야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설득했다. 특히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경제부총리, 중앙부처 장관, 기재부 실·국장 등을 설득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원팀을 이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탰다.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국비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중앙부처와 상시 접촉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예산안 반영으로 그동안 막혔던 부분이 다소 해소 됐지만, 최대 현안인 AI 2단계 사업은 안갯속이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역시 예타 면제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9월부터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보고회를 열어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 당위성 등을 설득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byeonha.no@jnilbo.com

‘광역교통망·남부권 관광개발’ 탄력

道, 농수축산·에너지 분야 ‘성과’
R&D 관련사업 10개 ‘역대 최대’
에너지신산업 등 투자 활기 기대
“지방소멸 극복·스마트전환 박차”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전년보다 3.4%(2907억 원) 증액된 8조892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 건의안 중 검토하겠다고 답한 대부분 사업이 선정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전남의 강점인 농·수·축산뿐만 아니라 SOC 확충부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및 도민 편의, 에너지 신산업 발굴과 R&D 연구 등에서 국비를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다지기를 위한 고른 투자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SOC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40억원)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수립비(37억원)가 반영됐다. 공사가 본격 진행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694억원) △여수화태-백야국도 77호선 연결도로(693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461억원)도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문화·관광 융복합 분야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총 26건(247억6000만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순천·진도 각 30억원)도 진행한다.

농수산 수출품목 1위로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산업 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2억2500만원) △수산물소비지원 산물류센터 건립(3억75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는 △여수 국동항 건설사업비(24억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402억원)을 통해 농·수·축산 미래 융복합 분야 발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첨단 R&D 및 전략산업의 경우 총 10개 사업의 국비 확보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연기관이 없는 전남도로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다.

대표 사업으로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41억5000만원) △디지털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35억2000만원) △미래 모빌리티 총돌안전 인프라 고도화(30억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44억원) 등이다.

‘글로벌 에너지 수도’ 도약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및 산단 지원으로는 △70kW급 신 송전 전력기자재 평가 기술개발 및 실증 기획육성(2억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5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개소(243억원) △자연재해취약개선지구 정비 36개소(439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관련 사업(947억원) 등 도민 안전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전남도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에 건의할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호남권 SOC 사업(2000억원)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2억원)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154억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20억원) △AI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3억원) △간척지 활용 첨단수산업식 배후단지 조성(15억원)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용역비(5억원) △여수 세계 삼박람회 개최 지원(32억원) 등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